

기독교문화학: 그 필요성과 연구방향 기독교문화학의 연구과정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주태화*

논문 초록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학문도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다. 인문학은 학제간 연구라는 방법론과 문화학을 만나 활기찬 변신을 하고 있다. 이를 기독교에 대비한다면 기독교와 사회의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는 학문적으로 그동안 통합연구와 학제간 연구방법론을 통해 사회와의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었다.

오늘날과 같이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는 시대에 기독교는 좀더 가시적인 방법론으로 현상을 접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로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갈등에 대한 복음의 제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인지(벧전 3:15)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여기에 기독교문화학이라는 분야를 정립하고,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 작업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핵심 주제어: 기독교와 사회의 쌍방향성, 기독교문화학,
기독교문화학의 연구과정 및 교과과정

*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antelao@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 기독교 문화현실과 반성
- III. 기독교문화학의 요구
- IV. 기독교문화학의 학문적 정립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세계는 지금 변화 중이다. 이 변화의 물결은 국제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지구촌에 밀려들고 있다. 이 변화가 피부적으로 느껴지기는 우리나라 대학과 학문계에 등장한 인문학의 위기설이다.¹ 세계화로 인한 세계의 빈부 격차가 20:80이라는 수자로 양분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듯이 학문에서도 그러한 양극화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대학 내에서 소위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구분되었으며,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훈련소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사회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신지식인이 필요하다고 압력을 넣는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로 대변되는 학문의 위기설은 한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초학문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문학에 관계된 교수와 연구자들은 과거 인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고답적인 방법론을 개혁하여 새로운 방법론적 접맥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문간에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대화를

¹ 인문학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다. 다음 책을 참조, 장희익 외 (2008), 『삶, 반성, 인문학 - 인문학의 인식론적 구조』, 서울: 태학사.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 (1998),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W. 카우프만 (1998), 이남제·이홍수 공역, 『인문학의 미래』, 미래네. 백원담 편 (1999), 『인문학의 위기』, 서울: 푸른숲.

활성화 하지는 의견이 비등하여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학이 눈 뜬 분야는 무엇보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이며, 이로서 문화학(Cultural Studies)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기에 이른 것이다.²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연구가 학문의 여러 분야와 어울려 학제간 연구를 유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학문간의 대화가 미흡하여 발전은 미비한 상태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대상을 향한 관심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개인(Individual)과 일상생활(Everyday Life)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거대담론이 해체되고 주변과 변방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한 특징이다.

세계와 학문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는 시대적 상황을 맞아 기독교계와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기독교의 사회적 리더십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종종 듣는다(김영재, 1994: 48-60).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기성종교가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것이 시대 조류라 하더라도, 유독 기독교의 리더십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왜인가? 앞의 질문과 관련하여 이 글은 시대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위상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독교를 이끌어온 전통적 학문인 신학 곁에서 시대적 통찰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다.

인문학이 위기설을 맞이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기독교계에 적용해 본다면, 그동안 기독교계는 학문적으로 신학 이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독교

² G.Turner (1995), *British Cultural Studies*, 김연중 역 (1995), 『문화연구 입문』, 서울: 한나래, 13f. A.Milner (1994), *Contemporary Cultural Theory*, 이승렬 역 (1996), 『우리시대의 문화이론』, 서울: 한뜻, 15f.

학(Christian Studies)이라는 분야에서 응용적인 연구를 해왔지만 방법론에서는 신학의 전통적 사유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신학적 패러다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기독교계와 사회 간에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생기고, 세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기독교와 일반 사회와의 소외 현상이 심화되게 된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³ 기독교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확장이 요구된다 하겠다. 위기에 처한 인문학이 문화학을 통해 출구를 찾아가듯이 기독교계도 기독교문화학(Christian Cultural Studies)이라는 분야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신학은 인간학이다”란 주장이 현 시대에 설득력을 갖는 것은 신학 일방향적인 해법만으로는 다양한 사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글에서 토의되는 기독교문화학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계와 사회가 어떻게 쌍방향적인 대화를 할 것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의 제시를 어떻게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벤전 3:15)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리라 본다.

3 목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목회방법의 변화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이 흥미있는 조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희 (1996), 『미래 사회와 미래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2000);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2002, 10쇄); 옥한흠 외(1998, 3쇄), 『IQ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 기독교신문사.

II. 한국 기독교 문화현실과 반성

1. 한국 기독교 문화의 현주소

한국 기독교는 지난 세기에 눈부신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세계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에 기독교 문화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확실히 대답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학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신국원, 2002; 신상언, 1992; 안환균, 1999; 원용일, 1997).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략 1/3에 해당하는 분포를 차지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으로부터 형성된 기독교 문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니 기이한 현상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기독교인들 안에 인정되는 문화, 즉 교회문화(Church Culture)는 존재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수용되는 기독교 문화는 빈약하다고 본다.⁴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으로부터 형성되어 비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용인되고 있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기독교 문화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운데서 향유되는 강력한 교회문화는 존재한다.

이 문제는 결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와 공유하는 유대감을 갖지 못하므로 기독교가 하나의 게토(Ghetto)를 형성한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기독교가 최근 들어 사회적 리더십을 상실한다고 자성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김영재, 1994).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기독교 문화의 부재에 관한 오해이다. 문화라고 하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Pattern of Life)이며, 가치관, 행동 체계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이다. 그런데

⁴ 필자는 다음의 책에서 이 주제를 분석해 본 바 있다. 『크리스찬 문화시평』(서울: 요 단출판사, 1997).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3).

기독교 문화를 거론하는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음악, 문학, 영화 등 문화의 구체적인 장르로 기독교 문화의 전체를 측정하려고 한다는 것이다(신국원, 2002).

비판적으로 본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원론적 문화를 갖고 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생활적인 행위는 일반사회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기반이 크게 형성되지 못한 점을 요인으로 든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은 니버(R. Niebuhr)가 관찰한대로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Culture against Christ)”나 아니면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in Paradox)”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⁵

2. 원인 분석

그러면 왜 한국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를 인도하여 왔다. 개화기 때에 한국 기독교가 복음전파 외에도 사회 계몽운동, 민족운동을 고취 시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제 시대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와 친일 행적을 행하였으나 이는 일부분이었다. 3·1운동을 위시하여 독립운동과 교육, 의료 사업에 기독교가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사회적 리더십을 인정하게 한 요인이었다. 또한 사회에 가치관, 윤리, 관습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⁵ 이 구분은 니버의 다음 책을 따른 것임. R. Niebuhr (1951),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1996),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쇄. R. Webber도 자신의 저술에서 기독교 문화의 이원론적이며, 배타적인 성격에 관해 논하고 있다. R. Webber, 이승구 역 (1992), 『기독교문화관』, 서울: 엠마오, 6쇄.

를 만들도록 노력한 것도 기독교였다(김영재, 1994).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딤후 3:15),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된다. 교회는 예배와 신앙의 공동체이면서, 사회인으로 구성된 기독교인들의 역동적 공동체인 것이다(Church as Social Institution). 교회는 성직자들 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인이자 기독교인 인 이들로 구성된다. 이는 교회가 사회와 무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리더십 위기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의 위기를 거론하자면 중세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교황과 교권중심의 중세교회는 극단적인 방향(이원론적 대립)으로 나가다가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되었다. 루터는 중세적 카톨릭 교리에 역매인 교회를 '바빌론 포로' 상황에 비유하였다.⁶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현재 한국 교회가 맞고 있는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개교회 자체가 형성하고 있는 교회적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 던지고 있는 기독교 비판과 기독교인들의 반성은 왜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일까. 한국 기독교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 기독교의 문화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지적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안환균, 1999). 이러한 위기감은 어디서부터 초래된 것일까. 그 근본적 원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이성희, 1997).

첫째, 한국 기독교가 처했던 종교적 상황 때문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종교는 다양했다. 불교와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이 한국의 토착 종교로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 외에도 동학, 천도교 등이 존재했었

⁶ M. Luther의 종교개혁적인 3대 저술 가운데 하나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를 지칭함.

다. 기독교가 선포한 유일신 사상과 구원은 타종교와의 타협을 불허하였고, 이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생존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기독교는 전도과정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고유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복음으로 변혁을 시도할 때 때로는 전투적인 면(ecclesia militans)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포용력을 보이지 못하고 강한 이미지로 등장하게 된 요인이 된다. 기독교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은 비기독교적 사회 안에서 때로 긴장감과 대립 등의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둘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신앙의 고유성, 복음의 독특성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적 응집력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는 복음의 적용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는 인지적 신앙을 근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즉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순례자로서의 삶보다는 믿음의 진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평가받는 인식 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신자들이 거하고 있는 삶의 정황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보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주된 표현이 되었기에 다양한 삶의 표출이 발휘될 기회가 적었던 것이다.

셋째, 한국 기독교는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목회자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 교회 성장, 성장지향적 목회를 하게 된다. 또한 교인들도 목회자의 개별적인 돌봄이나 심방에 의존하는 등, 개인적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목회자는 보편적인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 성장에서 오는 압박감과 심방과 같은 개인관계를 중시하는 교회문화에서 오는 시간적 여유 및 문화적 창조력의 부재, 이 두 가지 요인이 목회자

로 하여금 좁은 테두리 안에 붙잡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평신도 관점에서도 문제는 없지 않았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선민사상은 은연중에 세상문화와 거리를 갖게 했다. 신앙인들이 육체(Flesh)와 세상(World)으로부터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들의 행동이 비사회적이 되도록 한 면이 있다. 교회활동 또한 문화적이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들은 예배와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 아니면 신앙생활이 과도한 인지 활동에 비유할 만큼 IQ지향적이었다. 성경공부가 그러한 예이다. 이로서 감성과 인성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신앙 지식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깊이가 판단되는 경우가 생긴다. 평신도의 교회 활동이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결과, 교회와 사회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교회론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전투적이며, 남성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집회 중심적이었다. 이는 예배공동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 될지 몰라도 사회를 향한 포용력을 갖추기에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III. 기독교문화학의 요구

1. 다원화 사회 속의 교회

제3 밀레니엄 시대를 맞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있다. 네그로폰테는 『디지털이다』(Being Digital)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디지털 운명을 맞게 된다고 예언했다.⁷ 디지털 환경을 통해 커

무니케이션에 혁명이 다가왔고, 멀티미디어를 통해 삶의 대변혁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묻혀있던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발견되고, 정보의 고속도로가 생겨나므로 세계는 거미줄처럼 연결되게 되었다.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 뿐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기억의 세계까지도 바꾸어 놓았다.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짓는 사회성(Network)에도 디지털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이다. 현대는 다양하게 생산된 문화로 살아가는 문화의 시대이다. 이런 변화는 디지털 환경 속의 교회의 정체성이란 과제를 안겨준다. 교회는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문화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희는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이런 ‘잃어버린 세대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다시 태어난 모습을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이성희, 1997).

2. 대안으로서 기독교문화학

변화하는 시대에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앞에서 언급한대로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읽는 방법이 필요하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컨텍스트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교회가 사회에 주는 것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교회는 제대로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문화학(Christian Cultural Studies)이 활약해

7 그 외에도 여러 저술들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W. Kanoke, 『21세기 쇼크』(서울: 경향신문사, 1997, 4쇄). C.Schwab, 『21세기 예측』(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7, 12쇄)

야 하는 근거가 있다.

기독교문화학은 아직 정립되지는 않은 분야이나 앞으로 교회가 처한 상황의 컨텍스트를 확장하여, 폐쇄적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교회가 되게 한다. 기독교계를 주도한 학문이 신학이라면, 신학 일변도에서 생긴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즉 너무 전문화되어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사변신학, 너무 학문적이어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에 의존하여 현실성이 소실된 교단(敎壇)신학 또는 탁상(卓上)신학, 일반 학문의 방법론을 따라가다 유명무실하게 화석화(化石化)된 신학 등이 기독교계를 흔들고 있다. 기독교문화학은 대화 부재와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계에 활력과 대안을 바로 발견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청소년: 교육목회적 고려

기독교와 시대를 접근시켰을 때 가장 예민하게 영향 받는 대상은 자라는 세대들인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급변하는 시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므로 기독교계가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나아가 미래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문화학은 교육목회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교육은 교사위주로 편성되어 일방향이였다. 또한 방법도 주입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학과 대학 입학이 항상 주된 관심사였다.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은 것은 변화하는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과거 체제만을 고집한데서 온 결과였다. 그리하여 교육이 전인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었고, 융통성을 발휘하기에도, 자연과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부족함이 많았다. 학교위기, 교실위기 등의 용어는 이런 현상의 결과이다.

교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교회 교육은 학교 교육을 모방하였고, 공교육의 위기가 오자, 주일학교 교육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김희자, 1996; 정해원, 2000).

이런 교육 환경을 염두에 둔다면 기독교 문화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성, 사회성, 역사성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교회 교육은 성경공부 위주의 교육으로 학교 학습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도 학교공부와 유사한 신앙교육을 받으므로 흥미를 진작시키지 못한 면이 있다(정해원, 2000). 기독교 문화학은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례를 가져와 신앙교육에 대입시키므로 현실적이며 흥미있는 교안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이 동시대성을 가지므로 사회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기독교적 관점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4. 성인: 말씀과 현실성

다음으로 관심 두어야 할 영역은 성인 성도이다. 한국에서 성인 성도들이 신앙적 도전을 받게 되는 방법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이다. 설교는 종교개혁 이후 말씀 선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한국 기독교에 와서는 더욱 일방적인 예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유교적 수직 사회가 남아있는 곳에서 목회자의 설교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보내진다는 믿음 외에도 유교적 권위주의가 가미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이상근 외, 1992).

하지만 이제 현대 교회의 설교는 설교자의 일방향적인 선포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설교가 사회성을 너무 고려할 때 정치설교가 될 위험이 있지만, 사회성을 무시할 때는 편협한 시각을 강요하

게 된다.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간과하게 될 때,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포될 때 교인들의 의식은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성인 성도들은 교회 자체의 프로그램, 성경공부 과정, 제자훈련, 전도훈련 등에 참여하여 신앙을 돈독하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학교 공부같은 패턴의 방법이 습관적으로 쓰이고, 말씀과 개인의 체험적 만남보다는 반복 학습에 의존하는 성향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문화학은 설교가 현실성, 사회성,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연계점을 갖게 해준다. 이는 신앙 인식의 확대이지 결코 세속화라고 비판할 수 없다. 설교는 시대를 말씀으로 읽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숙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사회관계: 전도와 선교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것이다(이상근 외, 1992).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적극적인 신앙 운동이 사회에서는 독선적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반성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에큐메니컬 차원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가 사회를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강조하는 일방향적인 자세를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강성 이미지는 현재 그런 면에서 전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안티기독교 사이트들은 종종 기독교를 호전적이며 독선적인 종교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문화학은 사회 여러 현상들을 수용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화의 연결고리를 마련할 것인가 고려한다.

IV. 기독교문화학의 학문적 정립

1. 복음과 변혁

앞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기독교문화학은 기독교계가 사회로 나아가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기독교 내적으로는 사회변화에 따르는 교회의 대안을 연구하고, 외적으로는 현대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즉 기독교문화학의 다양한 방법론은 사회현실을 분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삶을 관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 복음과의 접맥을 시도할 수 있게 한다. 현대 사회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세속화로 향해 가고 있다.

복음은 그 성격이 변혁(Transformation)적이다(R. Niebuhr, 1996; R. Webber, 1992).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며, 그의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듯 복음이 가는 곳에는 죄의 문제가 방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음은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or)의 결단을 요구한다. 복음은 하나님 편이나 세상 편이나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에 복음은 곧 행동이며, 행동은 변혁을 지향한다.

복음은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연장된다(약 2:14, 마 7:24). 복음은 행동으로 표현되며, 행동은 복음의 외적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빌 1:27)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여기에서 기독교문화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문화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여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 현상을 바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 변혁은 대상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일(Diagnosis)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2. 학제간 연구방법론

문화학이 여러 학문들 안에 혼합된 방법을 기반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되듯, 기독교문화학도 각 학문 분야의 연구방법론들을 통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되고자 한다. 문화학이 기본적으로 인문학,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예술론, 커뮤니케이션론 등을 활용하듯, 기독교문화학도 이런 상황을 무관하게 지나칠 수 없다. 문화학은 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정통적 연구체계를 세우기 어려우리만큼 다양하다고 공론화되었다.⁸

이와 비교하여 기독교문화학은 신학과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에 일반 학문적 방법론에 대한 기독교적 검증이 따라야 한다. 물론 그 검증이란 검열하여 배척하려는 자세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 현실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de facto), 기독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방법론(Integration)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기독교문화학은 학문이 요구하는 진지하고도 치열한 연구자세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학문 분야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Lordship)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적 자세가 선재되어야 한다.⁹

⁸ 문화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나열하고 있다. 김광익(1998),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쇄. 아야베 쓰네키, 이종원 역 (1999), 『문화를 보는 열나섯 이론』, 인간사랑, 7쇄.

⁹ 예를 들면 객관성을 요구하는 사회학 같은 분야는 신앙적 관점과 통합하기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해 프레이저와 캠펠로는 다음과 같이 권유하고 있다. “사회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잘 성사시키는 것은 문화와 문화 간 또는 종교와 종교 간의 결혼식을 주선하는 것과 같다.……기독교 신앙과 사회학 간의 계속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저자는 “진리를 위한 협력”에서 두 학문은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D. Fraser, T. Campolo, 강대기 역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서울: IVP, 285-286.

3. 커리큘럼 연구

아래 제시되는 커리큘럼은 몇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일반 학문계에서 문화학이 아직도 체계적인 이론과 구조를 세우지 못한 것을 전제한다면 기독교문화학의 경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커리큘럼을 작성하는데 지표가 되는 4개의 모델은 첫째, 국내에서 기독교문화학적인 강좌가 개설된 대학 수준, 둘째, 세계적 기독교 대학의 강의 모델, 셋째, 세계의 대학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학 강좌, 넷째, 국내 선교단체가 추진하는 특강 형태의 주제가 그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모델, 즉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에서 이뤄지는 강의가 모델이 된 경우이다. 이를 위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기독교문화전공,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기독교문화학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의를 참고하였다.

두 번째 모델은 세계의 기독교 대학들이 제시하는 강의로서 Wheaton University, Calvin College(미국),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캐나다), Augsburg University, Tuebingen University(독일) 등에서 제안된 강의를 참고하였다.

세 번째 모델은 문화학을 학문 분과로 구분하여 연구하는 세계 여러 대학들의 강좌를 참고로 하였다. 여기에는 영어영문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지역학, 예술학 등의 분야에서 행해진 강의를 참고하였다.

네 번째 모델로서는 국내 기독교 단체와 선교 단체 중에서 문화를 중점 사역으로 활동하는 기관들을 참고하였다. 그 중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소비자운동본부, 문화선교연구원, 낮은올타리 등이 개최하는 세미나 주제를 참고하였다.

다음에 제안하는 커리큘럼은 대학 차원의 교육기관에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우선 기독교문화학을 공부하는 단계를 주제별, 주제 접근 및 해결능력, 주제의 난이도, 심화화 단계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그 아래 연구방법론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제를 선정하였다.¹⁰

- A 카테고리: 기독교와 문화 관련 강좌
- B 카테고리: 사회와 문화 관련 강좌
- C 카테고리: 실습 관련 강좌
- D 카테고리: 심화 과정

4개의 카테고리에 속한 강좌를 다시 학년,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세분화한 것이 커리큘럼의 이름으로 아래 소개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개별의 주제를 따로 선별하여 문화에 관심있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단계별 특강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공부해 볼 수 있겠다.

(1) 1학년 과정

- ① 현대사회와 문화 (modern society & culture)
- ②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culture & communication)
- ③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 culture)

¹⁰ 여기에 소개된 기독교 문화학 커리큘럼은 언급한 네 가지 모델분야를 참고하였으나, 필자의 경험과 주관에 상당 부분 개입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4가지 모델을 제공한 수많은 교육기관, 단체가 제시하는 주제 또한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이 커리큘럼은 수많은 주제를 모두 수용할 수도 없었다. 필자의 의도는 모든 가능한 연구방법론을 나열하기 보다는 한국적 연구 상황, 한국교계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인식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각 학년별로 1/2학기 2강좌씩 개설한다는 원칙 아래 구성된 것이다. 그동안 필자가 기독교문화연구 분야에서 체험한 내용을 커리큘럼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 하였으나 그 구성이 주관적이고, 그리하여 편협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관심 있는 학자, 연구지방자 등의 도움으로 개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④ 문화읽기와 창조적 글쓰기 (culture reading & creative writing)

(2) 2학년 과정

- ① 문화해석학 (cultural hermeneutics)
- ② 대중문화와 기독교(mass culture and christianity)
- ③ 영상텍스트 속의 한국 사회(korean society in film-text)
- ④ 대중문화 속의 인간 (image of man in mass culture)

(3) 3학년 과정

- ① 복음과 문화 (evangelism & culture)
- ② 교회문화 점검: 사례연구 (case study: church culture)
- ③ 기독교문화 관리론(management of christian culture event)
- ④ 문화치유론 (theory of cultural healing)

(4) 4학년 과정

- ① 문화 신학 (theology of culture)
- ② 기독교매체 실습 (practice: christian media)
- ③ 문화인물 연구 (case study: cultural leader)
- ④ 문화 관련 논문 (thesis writing)

기독교문화학 연구분야 개설강좌
Lectures for Christian Cultural Studies

학년/학기	강좌 / course offering		키워드	
1	1	현대사회와 문화	modern society & culture	사회 현상으로서 문화
	1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culture & communication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적 속성
	2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 culture	기독교사에 나타난 문화
	2	문화읽기와 창조적 글쓰기	culture reading & creative writing	능동적 사유와 표현
2	1	문화해석학	introduction to the culture analysis	해석 능력과 방법론
	1	대중문화와 기독교	mass culture & christianity	대중사회의 문화와 기독교 비평
	2	영상텍스트 속의 한국 사회	korean society in film text	영상에 비친 시대상
	2	대중음악, 대중문화 속의 인간	the man in the modern culture	대중문화 속의 인간상
3	1	복음과 문화	evangelism & culture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
	1	교회문화 점검: 사례연구	case study: church culture	개교회의 독특한 문화활동
	2	기독교문화 관리론	management of christian culture event	기독교계의 문화경영
	2	문화치유론	theory of cultural healing	문화 속에 내재한 치유발전
4	1	문화 신학	theology of culture	문화에 관한 신학적 관심
	1	기독교매체 실습	practice: christian media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기독교 영역에 활용
	2	문화인물 연구	case study: culture leader	문화생산자 연구
	2	문화 관련 논문	thesis writing	문화 이해와 논문작성

강좌 해설 :

A 카테고리: 기독교와 문화 관련 강좌

*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 Culture)

기독교는 서구 문명 뿐 아니라, 동서양 전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인류사에 영향을 끼쳐왔는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의 분야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문화변혁성(Transformation of Christian Culture)의 전망을 토의한다.

* 대중문화와 기독교 (Mass Culture & Christianity)

2천년 시대는 문화의 시대이고, 그 중에서도 대중문화의 시대이다. 이 강좌는 대중문화의 구조와 속성, 특징 등을 연구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대중문화의 각 분야를 어떻게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토의한다.

* 기독교 문화연구 (Theory of Christian Cultural Studies)

문화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화의 다원적인 구조와 현상 앞에서 기독교적인 방법론이란 어떤 것인가? 문화연구에 있어서 기독교적, 비기독교적 방법론의 차이는 어디까지인가? 성경, 신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윤리 등에서 도출된 연구방법론들을 토의, 적용한다.

* 복음과 문화 (Evangelism & Culture)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 사회와 문화가 비복음적으로

형성되어가는데,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문화를 수용하고 누릴 것인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복음적인 해답을 위한 토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 문화 신학 (Theology of Culture)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고, 문화는 종교의 실체이다.”(P.Tillich)라는 정의는 어느 시대까지 유효한 것인가. 종교가 세속화된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강좌는 기독교가 문화를 어떻게 보고, 문화창조의 목적과 질서, 방향을 어떠한 논리로 요구하는지 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B 카테고리: 사회와 문화 관련 강좌

* 현대사회와 문화 (Modern Society & Culture)

현대사회는 주지하다시피 다원적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성되는 문화 역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강좌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속성을 문화연구의 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문화 이해를 위한 기본 지식을 토의한다.

*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Culture & Communication)

문화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조직(Organic Structure)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상호교환적으로 작용한다. 문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이루게 하고,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도구임을 인식한다면 문화의 대중매체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 문화이론 (Introduction to the Cultural Theories)**

문화에 대한 정의는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0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문화는 한 공동체 안의 인간이 창출하는 살아있는 종합예술과 같은 것으로서, 유동적이며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문화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인문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예술론 등등.

*** 문화해석학 (introduction to the Culture Analysis)**

문화이론이 문화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면, 문화해석학은 해석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문화 각 장르를 어떻게 정확하게 편견없이 해석할 수 있는가, 적합한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가, 적용된 해석이 정당한가, 해석된 결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등등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뤄진다.

*** 문화인물 연구 (Study of Cultural Leader)**

문화는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작업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국내외 문화계(문학, 영화, 연극, 음악, 기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집중 탐구하므로써 문화가 형성되는 창조적 과정을 밝힌다.

C 카테고리: 실습 관련 강좌

*** 문화읽기와 창조적 글쓰기 (Culture Reading & Creative Writing)**

문화는 다층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상의 단순한 외형만 가지고서는 텍스트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텍스트로 향한 총체적 읽기는 대상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읽기가

글쓰기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문화읽기는 완성될 수 없다.

*** 영상텍스트 속의 한국 사회 (Korean Society in Film Text)**

영화는 현재 대중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가는 한 매체임에 틀림없다. 영상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영화는 매력적인 문화분야이다. 한국 영화 속에 비친 모습을 읽어내므로써 한국 사회를 분석, 진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대중음악, 대중문학 속의 인간 (The Man in the Contemporary Culture)**

대중문화 장르 중에서 인간의 내적 모습을 잘 표현한 매체는 아무래도 음악과 문학이라고 본다. 음악의 가사에서 묘사된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여기서 현대문화는 현대인의 내적 표상이라는 명제가 증명되고 있다.

*** 교회문화 : 사례연구 (Case Study: Church Culture)**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화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문화적 현주소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회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기독교인의 문화적 능동성을 갖게 하는 과제를 토의한다.

*** 기독교 문화관리론 (Management of Christian Culture Event)**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기 위하여서는 실제로 문화행사가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 실행하는 일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기독교 마인드와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독교 문화의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어야 한다.

*** 기독교 문화치유론 (Theory of Christian Cultural Healing)**

최근 들어 문화치유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향치료, 의미치료, 독서치료 등등. 그러나 일부 심리치료는 기독교적으로 수궁할 수 없는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다. 이 강좌는 문화의 다양한 장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 기독교 매체실습 (Practice: Christian Mass Media)**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매체, 예를 들면,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인터넷방송국, 교계 신문, 잡지 등의 분야에서 인턴쉽으로 실제 상황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게 한다.

D 카테고리: 심화 과정

*** 문화관련 논문 (Thesis Writing)**

문화 각 분야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강생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관심분야를 직업적 비평가로서 연결시키기 위한 마지막 코스이다. 또한 수강생이 졸업하기 위한 필수과정이기도 하다. 주제는 원칙적으로 수강생이 정하고, 교수 지도하에 집필한다.

*** 기독교 문화이론가 연구 (Case Study: Christian Culture-theorist)**

기독교계에서 문화연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집필한 저자들과 저술, 그리고 사상을 연구, 분석하므로 문화연구의 모델로 삼는다. 연구대상은 각 학기 강좌에 맞춰 선정한다.

★ 문화이론 연구: 각론 심화연구 (Case Study: Cultural Theory)

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수강생들이 요청하는 이론 중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V. 맺는 말

포스트모더니즘을 논하는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급격한 속도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국제화 속에서 세계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가 대중매체와 디지털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어 각 분야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사회는 노령화되어 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과학문명의 특혜를 누리는 듯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잃어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겠다. 복잡한 문명은 사람들을 오히려 단순화시키는 역기능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는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도 똑같다. 다만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기독교문화학은 급변하는 대중사회와 대중 매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상실의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하며, 나아가 어떻게 회복의 기회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 보려한다. 기독교 문화학은 현대인과 복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숙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서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듯이, 기독교계에도 기독교문화학이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 소개된 기독교문화학 연구를 위한 커리큘럼은 아직 완성된 구조와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일반 학문계에서도 문화학은 자신의 위상과 고유한 연구방법론을 찾기에 현재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기독교문화학도 비슷한 길을 가야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문화학이 학제간 연구라는 이름하에서 여타 학문의 단순한 혼합으로 전락하지 않고, 고유한 방법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기독교세계관이 제시하는 신앙고백적 토양에서 성숙해야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기독교문화학의 숙제로 남아있다.

참고 문헌

- 강영안 외 (1998),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광영 (1998, 2쇄), 『문화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영재 (1994), 『한국 기독교의 재인식』, 서울: 엠마오
- 김희자 (1996), 『정보화 사회와 기독교 교육』,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백원담 편 (1999), 『인문학의 위기』, 서울: 푸른숲
- 신국원 (2002),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IVP.
- 신상언 (1992),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서울: 낮은올타리.
- 아야베 쓰네키,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이종원 역 (1999, 7쇄), 서울: 인간사랑.
- 안환균 (1999), 『르뽀, 기독교문화가 위태롭다』, 서울: 규장문화사.
- 옥한흠 외 (1998, 3쇄), 『IQ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 서울: 기독교신문사.
- 원용일 (1997), 『문화의 유혹』,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이상근 외 (1992),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 이성희 (1997, 6쇄), 『미래 사회와 미래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 (2000), 『디지털 목회 리더십』, 서울: 규장문화사.
- ____ (2002, 10쇄), 『미래 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 이숙중 (2001), 『현대 사회와 기독교교육: 새 공동체를 지향하여』, 서울: 대한기독교 사회.
- 임성빈 편 (1997),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장희익 외 (2003), 『삶, 반성, 인문학 - 인문학의 인식론적 구조』, 서울: 태학사.
-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 협의회 (1998),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서울: 민속원.
- 정해원 (2000), 『21세기 복회의 새바람 교육북회』, 서울: 예루살렘.
- 조영업 (2001 개정판), 『교회론』, 서울: 미스바.
- 추태화 (1997), 『크리스찬 문화시평』, 서울: 요단출판사.
- _____ (2003), 『광장에서 문화틀 읽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한국경제신문 뉴딜레니엄 기획취재팀 (2000, 2쇄), 『21세기 21가지 대예측』, 서울: 은행나무.
- 호크마 종합주식 1권 (1989), 서울: 기독교지혜사.
- Attali, J. (1998), *Dictionnaire du XXIe Siecle*, 편혜원, 정혜원 역 (1998), 『21세기 사전』, 서울: 중앙 M&B.
- Bruggman, W. (1978), *The Prophetic Imagination*, 김래상 역 (1981), 『예언자적 상상력』,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Fraser, D. & Campolo, T. (1992), *Soci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강대기 역 (1995),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 서울: IVP.
- Hoizinga (1955), *Homo Ludens*, 김윤수 역 (1996, 5판), 『호모 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까치.
- Hull, B. (1993), *Seven Steps to Transform Your Church*, 마영래 역 (1999), 『변혁, 21세기 교회의 생존 전략』, 서울: 디모데.
- Hunson, Paul, *Dynamic Transcendence*, 김이곤 역 (1981), 『역동적 초월』, 서울: 컨컨디아사.
- Kanoke, W. (1996), *Bold New World: The Essential Roadmap to the Twenty-First Century*, 황대호, 최기철 역(1997, 4쇄), 『21세기 쇼크』, 서울: 경향신문사.
- Kaufmann, W.,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이남재, 이홍수 공역 (1998), 『인문학의 미래』, 서울: 비리네.
- Kuyper, A., *Lectures on Calvinism*, 김기찬 역 (2002, 중판), 『칼빈주의 강연』,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Milner, A. (1994), *Contemporary Cultural Theory*, 이승렬 역 (1996), 『우리시대의 문화이론』, 서울: 한빛.
- Niebuhr, R. (1951),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1996, 20쇄),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Rookmaaker, H. R. (1970),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김유리 역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IVP.
- Schaeffer, F., *How should we then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사회관』, 웨퍼 편집 제 5권 (1995), 서울: 생명의 말씀사.
- Schwab, C. (1995), *Overcoming Indifference. Ten Key Challenges in Today's Changing World*, 장대환 감역 (1997, 2쇄), 『21세기 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Tillich, P. (1959), *Theology of Culture*, 김경수 역 (1995, 11판), 『문화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Turner, G. (1992), *British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김연중 역 (1995), 『문화연구 입문』, 서울: 한나래.
- Webber, R.,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 역 (1992, 6쇄), 『기독교문화관』, 서울: 엠마오.

ABSTRACT

**Christian Cultural Studies: Contemporary Needs
and Methodology**

Tea-Wha Chu

Heutzutage lebt man in der heftigen Beeinflussung der modernen Massenkultur. Sie versetzt die modernen Menschen vom Absoluten, Transzendenzen, Religioesen, ins Trivialen, Alltaeglichen. Allegorisch gesagt man lebt in den verschiedenen Show-situationen.

Die Gemeinde hat sich verpflichtet, das Evangelium zu verbreiten. Aber nicht einseitig. In der Geschichte haben wir genaue Beweise dafuer, aus welchen Gruenden Luther, Kierkegaard, Nietzsche in je verschiedenen Zeiten solche kritische Taten erregt haben. Sie lebten zeitlich verschieden, aber hatten gemeinsame Aussage, warum sie sich gegen geschlossene Struktur der Kirchengemeinde erheben. Also die Kirche soll offen sein, wie K.Popper forschte.

Jetzt ist es Zeit der Kultur, sozusagen Interaktivitaet. Die Kirche soll mehr offen bleiben, um die modernen Menschen zu Jesus zu fuehren. Sie soll nicht nur Gemeinde des Glaubens, sondern auch Gemeinde der Kultur. Durch die kulturelle Taetigkeit wird die christliche Gemeinde offen bleiben

gegenueber der Welt.

Meiner Forschung nach beeinflusst der Begriff des modernen Massenkultur die Rolle der christlichen Gemeinde. Die Offenheit der modernen christlichen Gemeinde zur Kultur soll sich selbst retten, rettende Gemeinde zu sein in der naechsten Zeit, oder nicht.

Key Words: Christian Cultural Studies, Interactivity between Christianity and Society, Christian Cultural Studies as Curriculum